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희망으로 산다(예레미야애가3:19-26)

2024 새 생명 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가 '하나님의 선물' 을 주제로 2024 새 생명 축제를 연다.

이 행사는 3월 9일(토) 오후 7시, 10일(일) 1-4부 예배 때 열리며 강은도 목사(더푸른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다.

노창수 목사는 "강은도 목사는 복음 안에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 공동체를 추구해 온 젊은 목회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 하는 데 앞장서왔다" 면서 "이번에 2024 새 생명 축제에 강사로 모시게 돼 기쁘다" 고 말했다.

강은도 목사는 "더푸른교회를 개척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절대원칙이었다" 면서 "이번 남가주사랑의교회 새 생명 축제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고 전했다.

▶ 문의: (714) 772-7777

'왕의 재정' 부흥회 은혜한인교회

'왕의 재정' 으로 유명한 김미진 간사가 강사로 나서서 왕의 재정 부흥회가 3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서 열린다.

김미진 간사는 NCMN(Nations-Changer Movement & Network) 대표이자 '왕의 재정학교' 주강사로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란 주제의 그의 강의는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김 간사는 '왕의 재정1', '왕의 재정2', '왕의 재정학교 워크북', '왕의 음성'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특히 세상의 부자인 속부(俗富)와 달리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인 성부(聖富)가 되자는 '성부론' 을 주장하여 화제가 됐다.

▶ 문의: (714) 446-1000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두운 면을 보면 인생은 별것 아닌 힘든 것이지만, 밝은 면을 보면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한 일들이 정말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은 아주 어둡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로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1.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실 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입니다. 잊지 못하는 그 기억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입니다. 현실의 어려움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상처 입은 기억, 고통의 기억, 죄의 기억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해결을 받으십시오. 용서 받을 것은 용서를 받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십시오.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숙이 숨겨놓은 하



나님과 여러분들만이 아는 은밀한 것들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더 이상 삶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2. 여기에 사람을 힘 나게 하고, 사랑을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고난의 현실에 대한 나쁜 기억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 솟아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의 은총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구원의 새벽을 맞고, 고난 속에서 웃음을 배웁니다.

지금 당신이 서있는 곳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

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바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은 가능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찾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3.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밖에 나가 그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실하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 하겠다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성실한 사랑, 이것이 불성실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땅에 사는 하늘 사람은 과거의 악한 것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최이우 목사-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